고건-與-민주 "내 깃발 아래로" 동상이몽

■정계개편 3각축 주도권 경쟁 본격화

高 "중도실용개혁세력 집결" 분주

與 통합신당파 '외부 동력' 모색중

民 결속 다지며 與 이탈 세력 규합

고 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선언에 따라 범 여권의 정계개편 구도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 전 총리의 3각 구도로 형성됐다. 이들은 지역적 기반과 이념적 토대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어 서로 통합과 구애의 대상이지만 통합의 방향에서는 엇갈린 부분이 있다.

특히 3각 축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면 전체적인 정계개편 판도는 한 방향으로 급격히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 팽팽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진영의 물 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고건 전 총리**=우선 여·야에 분포돼 있는 중도실용개혁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의 통합신당파와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의 일부 세력과 함께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권 외곽의 전문가 그룹인 '희망연대', '미래와 경제' 등을 한 데 아우르기 위한 정지 작업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당을 함께 꾸려갈 외부 인사들을 모은 뒤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영입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건 신당이 성공적으로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다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탈도 예상되지만 현재의 지지율과 조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고건 신당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분열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정기국회 이후 정계개편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간의 세 대결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계개편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의중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탈당같은 움직임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러나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간의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전후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급속한 분열이 예상된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내부적인 동력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어렵다는 인식이 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발길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외형적으론 고건 전 총리의 신당창당 움직임이 정계개편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계개편 국면에서 고건 신당은 호남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열리우리당 이탈 의원들과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했던 민주당의 구상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구성 과정을 보면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i.co.kr

시 실

정책실패가 주택경기 양극화 불렀다

수도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지방은 주택경기가 아예 실종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고, 지방은 극심한 침체 속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불안이 심상치 않자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름 만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가격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매매가와 전세금은 동반 위축되는 등 극도의 침체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10·29, 8·31, 3·30 등 굵직굵직한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만 부추긴 꼴이 되고만 것이다.

주택경기 양극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에조차 획일적인 부동산 규제가 가해져 지방 주택경기를 실종상태에 빠뜨린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야 성공한다'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부터 얻는 게 급선무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부터 전면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부실투성이 여수엑스포 사이버 홍보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이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특강을 통해 "여수가 2010년 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중국 상하이에 져 '재수'를 하는 셈"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의 입장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수엑스포는 김 장관의 표현대로 현재 세계 10~12권인 우리의 해양력을 5위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로코 및 폴란드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정부의 무성의는 부실투성이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지 5개월째 중앙 차원의 홈페이지조차 개설하지 않고 있다.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전남도와 여수유치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전부인데다 영문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을 상대로 한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림픽 및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평가받는 엑스포는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유치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BIE 실사가 내년 3월 예정돼 있고 내년 말 개최지가 결정된다. 정부는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엑스포 여수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高建 신당 盧대통령 배제 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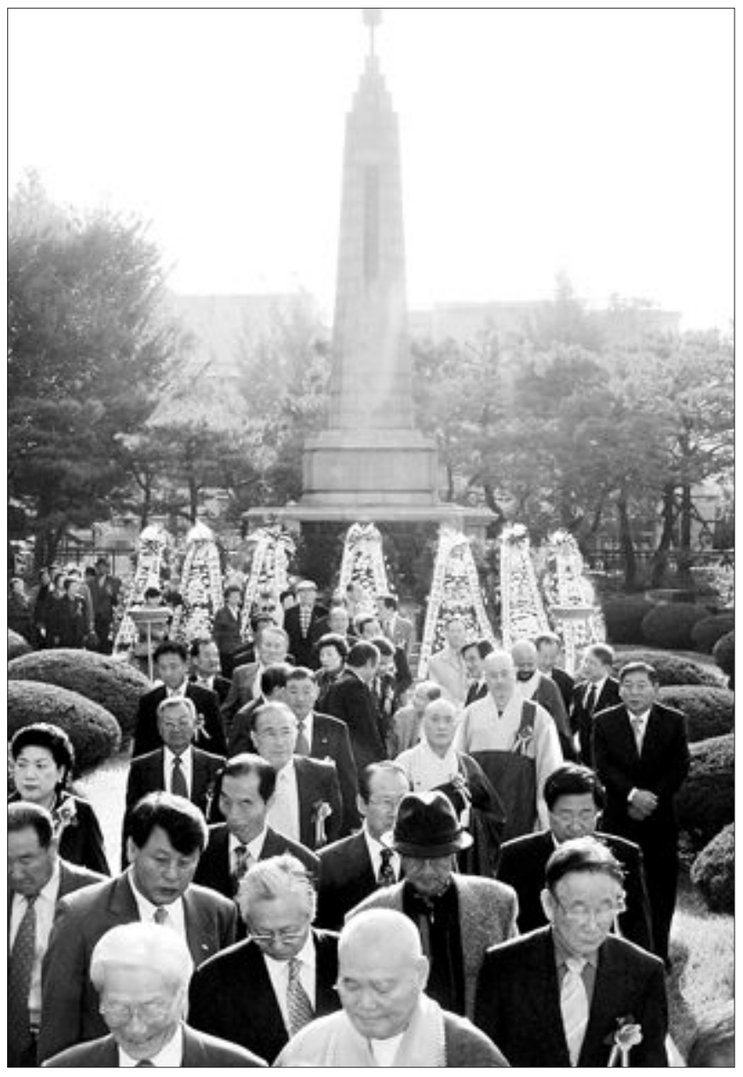
광주 온 천정배 "고 前총리 자성해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3일 신당 추진과 관련해 "정책과 비전, 노선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크게 뭉쳐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를 배제하고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합 정신에 어긋나고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고 건 전 총리의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신당창당 언급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고 전 총리는 참여정부 초기 국무총리를 지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신당 논의에서 노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 "당원이고 지도자로서 당 진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신당 등 미래 정치에 대해서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을 견제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민주당과 통합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논쟁의 초기 단계로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면서도 "특정 세력 배제는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3일 광주일고에서 열린 학생독립운동기념식 참석 인사들이 일고 교정에 있는 기념탑 참배를 마친 후 돌아 나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美 '6자회담 조율' 한·중·일 순방

대표단 구성 8~9일께 방한

국무부 차관 2명을 위시한 미국 대표단이 북핵 6자회담 준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주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가 지난 2일 발표했다.

미 국무부의 차관 두명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동시에 동북아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6자회담 협상에 극적인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날 방문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 이행과 6자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 담당, 로버트 조지프 군축·국제담당 차관을 동북아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차관을 포함한 미 대표단이 오는 5~6일 일본, 7~8일 중국,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한국을 각각 방문하고 10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두 차관은 도쿄에서 일본 관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뒤 베이징과 서울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국에서는 러시아 측 대표단 일부도 만날 예정이어서 이번 방문길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4개국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국무부 이외에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재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달말 6자 비공식 회동할 듯"

천영우 수석대표 밝혀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 이달 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측이 6자회담 공식회담을 갖기 전 수석대표들끼리 만나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 비공식 회동이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꼭 하겠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개최 여부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승격 첫 국가 기념식

'학생의 날'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된 11월 3일을 맞아 국가 차원의 기념식이 처음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학생독립운동 유관단체,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을 기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메이지(明治) 일왕의 생일인 '명치절' 축하행사에 강제 동원된 학생들은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통치에 반발해 거리 곳곳에서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벌였고 정부는 1953년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했다. 학생의 날은 1973년 폐지됐다가 1984년 부활됐으나 기념식은 광주에서 소규모로 개최돼 왔다.

한편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광주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도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독립운동을 소개하는 계기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광주일고에서도 학생 독립운동 동지회 후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려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렸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코카콜라·네슬레 '녹차 시장' 가세

코카콜라와 네슬레는 조인트벤처인 'Beverage Partners Worldwide'(BPW)의 사업활동을 재조정해 녹차음료에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관계당국의 일부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이번 조치는 2007년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양 사는 조인트벤처가 해당 사업권역에서 녹차음료 판매활동에 집중할 경우 BPW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진출을 강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엔비가'(Enviga)라는 상품명으로 최근 미국에서 출시됐고 2007년에는 유럽에서도 판매될 이 기능성 녹차음료는 기존 조인트벤터를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네슬레와 코카콜라가 50%씩 지분을 가진 BPW는 양 사가 Coca-Cola and Nestle Refreshments (CCNR)라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10년간 협력해 온 후인 2001년에 설립됐다. /**연합뉴스**

옛 전남지사 공관 미술관으로 변신

옛 전남지사 공관이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3일 "서구 농성동 옛 전남지사 공관을 '도심공원 속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원계획 변경과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연말 안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등에는 4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1,2층에는 전시실과 관리실 등이 들어서며 주변 정원에는 휴게실, 산책로, 광장 등이 조성돼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바뀐다. /**채희종기자** chae@

軍 장성급 113명 정기 진급인사 단행

정부는 3일 육군 심용식(육사34기)·해군 우상준(해사31기)·공군 고경윤(공사25기) 준장 등 24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장성급 113명에 대한 정기 진급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은 준장 13명이 소장으로, 대령 55명이 준장으로 각각 진급했으며 해군은 준장 6명이 소장으로, 대령 17명이 준장으로 승급했다. 공군은 준장 5명이 소장으로, 대령 17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진급 인사에서 육사 37기 출신이 처음으로 별을 달았다. 또 이번 인사 결과로 육사 34기 출신이 사단장에 처음 보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光日만평

- 김종두

이건 진짜 무섭다

F1 특별법에 '경차' 포함될 듯

'2010 F1(포뮬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안에 '경차'(競車)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2010년 F1 대회'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경차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차 조항은 사행성 산업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반대여론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이날 박 지사와 의원들은 F1 경주장의 사후활용 측면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차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별법안에 이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제출해 신속한 법률안 통과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남해안 특별법 통합해야"

남해안 개발을 위해 각 정당이 발의한 법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대 이성호 교수는 3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남해안 발전 심포지엄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의원발의한 특별법안이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